

KTX역도 지역차별... 철도시설공단이 송정역사 규모 줄였다

공단측이 설계 면적보다 축소 주문... 절반 가까이 줄어

개통 한달만에 증축 필요성... 신정주역 9배, 동대구역 6배 넓어

■ 주요 KTX역 현황

	광주송정역	동대구역(환승역)	신정주역	울산역	부산역
준공일	2015. 4	2013.12.	2010.12.	2011.7.	2010.12.
연면적	4,699㎡ (지상 4층)	26,700㎡ (지하1, 지상5층)	37,405㎡ (지하1, 지상2층)	8,575㎡ (지하1, 지상4층)	18,477㎡ (지방형 제외)
대합실	1,298㎡	3,972㎡	4,071㎡	2,292㎡	14,033㎡
주차면	약 400면 (대형 3면 포함)	538면	453면	1,049면 (임시 230면 포함)	500면
이용객(일)	주중 : 10,799명 주말 : 16,411명	주중 : 55,000명 주말 : 80,000명	주중 : 6,000명 주말 : 7,500명	주중 : 14,000명 주말 : 18,000명	주중 : 44,000명 주말 : 60,000명

호남선KTX 개통과 함께 광주의 새로운 관문이 된 송정역이 비좁은 역사와 부족한 주차장 등으로 교통지옥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특히 송정역 설계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역사(驛舍) 규모 등을 축소하도록 특별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KTX역마저 지역차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송정역보다 앞서 신·증축된 경부선KTX역사들의 면적이 최대 9배 이상 넓은데도 추가 증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정역의 교통대란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올 4월 준공한 광주 송정역은 연면적 4699㎡, 주차 400면은 확보하고 있다. 기존 209면에서 불과했던 주차면이 준공을 앞

두고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추가 확보된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예초 송정역의 규모도 현재보다 두배 정도 넓게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011년 이후 호남선의 경우 대합실 등 역사규모 축소를 특별주문하면서 대폭 줄어 현재의 협소한 역사가 됐다.

반면 송정역보다 앞서 신·증축된 신정주역은 송정역보다 연면적면에서 9배, 부산역은 4배, 울산역은 2배, 동대구역은 6배나 넓다.

특히 울산역은 송정역보다 2배나 넓은 규모임에도 대합실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역사증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송정



온실가스 1인 1t씩 줄입니다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발대식’이 28일 오후 광주여성발전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실천서약을 한 후 구호를 제창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역의 주차면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6000명(주중 기준)에 불과한 신정주역보다 53면이나 적은 정도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 등에는 부족한 주차면과 송정역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불법 주차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들을 예상하고

검토 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1년여가 다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일단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협의를 통해 부족한 주차장과 협소한 송정역 등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준공 한달여만에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송정역사 축소 결정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송정역보다 이용객은 적으면서도 역사면적은 훨씬 넓은 경부선 내 일부 KTX역들이 비좁은 공간을 호소하며 증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 역들의 사례를 감안해 가장 늦게 지은 송정역사의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도 오히려 반토막을 낸 철도시설공단에 공사 책임을 묻는 한편 추가 증축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성완중 사면·금품의혹 과거부터 낱알이 밝혀야”

朴대통령 대독 메시지...“총리 사퇴 국민에 심려 끼쳐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성완중 파문’과 관련, “금품 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 등을 낱알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만연했던 지연·학연·인맥 등 우리 정치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꾸고 썩어 썩어 부패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해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표 수리와 관련, “어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박 대통령은 이 전 총리의 퇴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이번 ‘성완중 사태’ 전반에 대한 대국민사과는 하지 않았다. 나아가 현 국면을 강력한 정치개혁을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 메시지는 특별사면을 거론하며 야당을 정면 겨냥해 논란을 불렀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사건 본질 호도...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별도 특검법안 당론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성완중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은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를 가리며 정쟁을 하는 야당의 편을 들어 간접적으로 야당의 선거를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당 ‘친박 비리개혁 대책위’ 전병헌 위원장은 오전 국회 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대독 메시지는 야당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측근이 연루됐는데도 책임을 지지않고 오히려 책임을 묻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실세들 문제부터 분명히 해야 야당도 정치개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주변 문제는 인정치 않고 과거부터 쌓인 문제를 척결하겠

다는 것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성남 중원 보궐선거 지원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사면을 말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또 직접 정쟁을 부추기고 나서는데 모습을 보인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성완중리스트’가 폭로한 정권 최고 실세의 부정부패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즉각적인 특검 수용도 촉구하며 이날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별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준석 전략홍보본부장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은 조사 범위를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8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의혹, 경남기업 긴급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불법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의회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조례안 의결

전남도의회는 28일 오전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재적의원 51명 중 찬성 44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수정동의안의 주요 골자는 이사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 원장에 관한 조항, 연구의 자율성 보장 규정, 행정사무감사 조항, 시·도 공동협의체 구성, 3년마다 연구원 발전 종합계획 수립 조항, 연구원 해산시 사전절차 이행 조항 등을 신설했다.

선임직 이사는 시·도가 같은 수로 추천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도지사가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해 선임하도록 했다.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

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토록 했다.

연구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연구과제와 연구원 운영 등의 협의를 위해 시·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 시·도의회가 이견을 보였던 통합연구원 소재지는 정관에 넣기로 합의했다.

연구원은 지난 1991년 7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1995년 6월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운영됐다. 이후 지난 2007년 분리된 뒤 지난해 7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양 시·도 상생발전 의제의 하나로 통합이 추진되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창사 63주년

다도해의 아름다운 휴식을 담은 호텔

예향 남도의 문화가 가득한 목포에서 최상의 호텔 서비스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서남권 유일의 특1급 호텔, 호텔현대(목포)

호텔현대는 전남 서남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유일의 특1급 호텔로서 객실 발코니에서 다도해의 일출과 일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500여명의 고객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홀을 비롯해 기업 및 공무원 연수, 학술회의, 연회 등이 가능한 중소연회장을 갖추고 있어 각종 이벤트를 원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61-463-2233 / www.hyundaihotel.com

208실의 고급객실 / 컨벤션(컨퍼런스)실 / 실내테니스장 / 실내수영장 / 남서사우나 / 헬스클럽 / 스크린골프 / 당구장 / 키피숍 / 양식당 / 로비라운지 등

현대삼호중공업